

용역최종보고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정책성등급조사 결과보고서

2023. 8.

# 요 약

## I. 정책성 등급 조사의 개요

□ 주관기관인 충청북도가 제출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총괄』(이하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최기간: 2025년 9월 12일~10월 11일(30일간)
- 개최장소: 충청북도 영동군 일원(레인보우힐링관광지, 국악체험촌, 군민운동장, 영동체육관, 실내외 테니스장 등)
- 개최목적: ① 한국과 세계가 만나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는 세계화의 장 마련, ② 국악의 가치 재조명 및 미래발전 가치를 공유하여 국악산업 연계, ③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기 위한 국악분야 한류 콘텐츠 활용, ④ 전통 음악의 매력적인 요소를 시연하여 국악의 대중화 실현
- 참가 규모: 약 30개국에서 총 97만 명의 관람객 참가 예상, 내국인 관람객 86.1만 명, 외국인 관람객 10.9만 명 예상
- 주요 행사: 8개 유형의 70개 프로그램
- 주관기관: 충청북도
-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총 사업비: 150억 원
  - 재원 구성: 국비 45억 원(30%), 지방비 64억 원(43%), 자체수입 41억 원(27%)

□ 본 정책성 등급 조사는 충청북도가 2025년 9월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 결과(점수)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본 보고서는 기획재정부훈령에 의해 마련된 「국제행사관리지침」의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행사의 정책성 평가를 수행하였음.
-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따르면 정책성 등급 평가는 행사개최의 공익성(30점), 행사개최 계획의 우수성(30점),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20점),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20점)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평가
- 「국제행사관리지침」은 상기 4가지 평가기준을 더 구체화하여 총 17개의 세부 평가 기준을 제시함.

## II. 행사의 성격 및 유사 행사 파악

### 1.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격과 특징

-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의 국제행사 정의에 따라 국제행사로 분류될 수 있음.
-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영동군 지역의 전통음악과 관련 인프라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국제행사로 볼 수 있음.
- 서양 문화에 대비되는 동양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한국 전통음악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차세대 동양 문화 콘텐츠로서 한국 전통음악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행사
-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서 대도시가 아닌 지방 도시인 영동군을 인식시키고자 함으로써 탈도시적 형태의 축제로서의 성격을 지님.
- 국악 관련 자원의 집결과 민·관·산·학 등 다양한 주체 간 상호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 및 플랫폼을 제공하는 행사로서의 성격을 지님
- 영동에서 매년 개최되어 온 「영동난계국악축제」와의 연계성을 지님.
- 영동군 지역의 전통음악이라는 지협적인 주제와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함께 제시하는 축제임.
- 영동군은 오랜 기간 동안 국악 축제를 개최해 온 지역으로서 국악 체험, 창작 등에 관한 노하우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당 국제행사에서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 2. 동종 또는 유사 행사 분석

- 동종 또는 유사 행사로서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주요 특징은 ① 판소리가 전라도의 전통문화라는 전통적 이미지의 생산을 주도, ②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체험의 폭을 확

대해서 미래의 관객 육성, ③ 전통음악과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접목을 시도, ④ 중앙공모 등을 통하여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국내외 협력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동종 또는 유사 행사로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주요 특징은 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들이 전승되어 오는 안동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 ② 국내외의 주요 탈춤공연 등을 주요 공연행사로 하고, 지역의 고유한 전통놀이, 다양한 경연, 마당극 및 창작극, 체험 등을 부대행사로 가미한 지역문화축제로 지역발전 전략이 내포된 행사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Ⅲ. 정책성 분석

#### 1. 행사 개최의 공익성

##### 가. 행사 개최목적의 국익 및 공익에 대한 기여도

- 당 국제행사의 개최목적은 국악의 세계화 및 대중화, 국악 관련 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이라는 국익과 공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나. 행사 프로그램을 통한 개최목적 달성 가능성

- 주관기관이 계획하고 있는 전시, 공연, 교육, 이벤트, 체험 등 다양한 유형의 행사 프로그램은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악을 소개함으로써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얼마나 많은 국내외 기업 또는 바이어가 당 국제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인지를 예상하기 어려워 이들과의 사전적 협의 및 논의가 없다면 당 국제행사의 산업 연계는 예상보다 낮을 수 있음.

##### 다. 주무부처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여부

- 당 국제행사는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정과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2023.3)의 추진과제, 「국악진흥법안」 제정 추진 등과 연계성이 있음.

##### 라. 행사주관기관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여부

-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에 포함된 충청북도의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 사업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음.

#### 2. 행사 계획의 우수성

##### 가. 행사계획의 실현 가능성

□ 주관기관이 수립한 행사계획은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관기관은 당 국제행사의 개최기간을 총 30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동 기간 프로그램의 중복 없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음.

#### 나. 행사 개최시점의 시의적절성

□ 최근 세계적으로 K-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지방 소멸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2025년이라는 개최시기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국악 및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지역행사가 유사한 시기인 9월~10월 사이에 개최될 수 있어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시기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다. 내·외국인 유치계획의 현실성

□ 국악 관련 엑스포가 과거에 개최된 적이 없어 관람객 유인력이 낮을 수 있다는 점, 개최지인 영동군의 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관람객 10.9만 명은 다소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라. 목적 달성을 위한 행사 홍보 계획의 적절성

□ 주관기관이 계획한 관람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가능한 매체별, 단계별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적절하게 홍보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 마. 주관기관이 과거에 개최한 동종 또는 유사 행사 등의 개최결과 반영 여부

□ 「영동난계국악축제」를 매년 개최해 온 주관기관의 역량을 고려할 때 당 국제 행사 프로그램 구성에 「영동난계국악축제」 개최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2년 개최된 「영동난계국악축제」의 개선사항을 고려해 향후 공연 및 경연 프로그램 구상 시 국악 관련 재단 및 국악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바. 시설물 활용계획의 합리성

- 주관기관은 군민운동장, 실내 테니스장, 레인보우힐링관광지, 국악체험촌 등 기존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사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바, 시설물 활용계획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3.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 가. 행사주관기관과 당 행사 사이의 역사·문화·지리적 연계성 및 행사장소 접근성

- 충청북도와 영동군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측면에서 당 국제행사와 연계성이 높음.
- 행사 개최지인 영동군에는 KTX역과 공항이 소재하지 않고, 수도권-영동군 간 고속버스 노선이 충분하지 않아 행사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음.

#### 나. 행사주관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행사 개최 성과와 행사 개최를 위한 인프라 확보 여부

- 「영동난계국악축제」는 1965년부터 매해 개최되었고, 공연·경연대회·학술행사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 국악계에서 행사의 정통성과 명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악지역으로서 영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함.
- 국악 관련 인적·시설 인프라는 충분하게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나, 숙박 인프라는 영동군 내에서만 예상 관람객을 수용하기에 부족한 상황임.

#### 다.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의의 충분성

- 문화체육관광부와 주관기관 간 실무회의, 충청북도와 영동군 간 실무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어 협의가 충분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라. 지역주민과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위한 적절한 사전 협의 여부

- 읍·면 단위의 주민설명회 개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축제나 공연에서 당 국제행사를 수시로 홍보, 충청도민과 영동군민을 대상으로 당 국제행사 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세 차례 실시하는 등 주민과 사전 협의가 적절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전국 및 해외 소재 기업과의 사전 협의는 진행되지 않음.

마. 지역주민의 행사 개최 지지도

- 영동군이 2021년 9월 충청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3%가 ‘국악’을 주제로 한 엑스포 개최에 동의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3년 5월 영동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7.7%가 당 국제행사 개최를 지지함.

#### 4.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가. 해당 행사에 대한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사유의 적절성

- 충청북도와 영동군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 기준 각각 28.7%와 6.7%로 낮은 편이며, 특히 영동군은 소멸 우려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당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또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가치를 제고하여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전승하려는 국가적 노력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동일 또는 유사 행사 대비 국고지원 규모의 적정성

- 국고지원 요청액 45억은 총 사업비 150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유사 국제행사의 국고 요청액 비율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함.

#### IV. 사업비 분석

- 시설투자비용 총 66억 5,000만 원 중 약 8억 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평가됨.
  - 세계국악희망탑과 같이 현재 시점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조형·시설물은 개략 견적을 반영했으며, 미디어파사드월 등 일부 항목의 단가는 과다 산정됨.
- 행사직접비용 총 83억 5,000만 원 중 약 4억 8,000만 원이 과다계상으로 평가됨.
  - 프로그램 및 홍보마케팅 비용은 각각 약 2억 원 과다계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행사운영관리비용은 약 1억 원 과소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 당 국제행사 개최에 필요한 적정 사업비는 행사계획에 제시된 총사업비(150억 원)의 91.28%에 해당하는 136억 9,149만 원인 것으로 추정됨.
  - 이는 『기본계획』의 수량 오류와 원가검토 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유사한 프로그램의 통합 혹은 폐지, 일부 행사 관련 인원의 모호하고 중복된 역할 조정, 일부 항목의 기준 수량 축소, 중복 가능성이 있는 항목의 조정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적정 사업비는 더 낮아질 수 있음.

요약 표 1. 적정 사업비 추정 결과

분야		계획 금액 (백만 원)	원가검토 금액 (백만 원)	검토율(%)
시설투자 비용	행사장 조성	4,629	4,026	86.98
	전시연출	2,020	1,799	89.04
행사직접 비용	프로그램	3,000	2,798	93.28
	행사운영관리	2,500	2,612	104.49
	홍보마케팅	1,900	1,677	88.23
	기타	951	779	81.98
합 계		15,000	13,691	91.28

## V. 종합평가 및 결론

### 1. 종합평점 도출

- 「국제행사관리지침」에 규정된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AHP 분석 방식에 의해 산출한 종합평점은 100점 만점에 88.0점임.

요약 표 2. AHP 평가자 8인의 평가 결과

평가기준	배점	평점	종합평점
행사개최의 공익성	30	26.9	88.0
행사계획의 우수성	30	24.9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20	17.7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20	18.5	

### 2. 결론 및 정책 제언

-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국악 및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지역행사가 당 국제행사 개최와 유사한 시기인 9월~10월 사이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 고민
  - 당 국제행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문 행사명과 영문 행사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행사 프로그램의 구체화 단계에서 대행사의 의존도를 줄이고 주관기관, 조직위원회, 국악 관련 재단 및 전문기관의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국내외 기업, 30개국 해외 전통 공연단 등의 참여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조사와 향후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 당 국제행사의 개최가 국악 산업의 발전과 지역 브랜드 이미지 구축 기회로 이어지도록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 수립 필요

- 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바, 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화하여 행사 진행 인력들이 이를 숙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